“노래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불이 되고 불이 우리가 될 때까지》 전시를 보고

박기형 선전위원장

시각예술에서 푸티지(Footage)는 보정·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가리킨다. 이 푸티지들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아카이브를 이루고 있다. 푸티지에는 휙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져 종종 놓치고 마는 이야기들, 중심 구도에서 비켜나 있는 주변의 존재들이 담겨 있다. 이 푸티지들이 누군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하나의 영상으로 배열되고 구축된 것, 곧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가 되는 순간이 있다. 그를 통해 푸티지들은 분명히 멈춰선 이미지, 강렬한 이야기, 중심을 뒤흔드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범람하는 푸티지들로 이뤄진, 형체 없이 유동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규제받고 억압되어야 할 대상이면서, 저항의 무기이자 해방의 창구다.

압바스와 아부-라흐메의 예술 실천

올해 팔레스타인 작가 듀오 바셀 압바스(Basel Abbas)와 루안 아부-라흐메(Ruanne Abou-Rahme)의 첫 개인전이 누화컨템포러리에서 열렸다. 그들은 20여 년간 식민주의에 맞서왔다. 어떻게 삭제와 부정에 저항할 것인가? 그들은 한편으로는 푸티지들의 아카이브, 즉 기존 아카이브를 발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제작한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를 샘플링하고 재구성한다. 그럼으로써 즉흥적으로 구성된 아카이브(an improvised archive)를 형성한다. 이들의 파운드 푸티지는 일상에서 이뤄지는 반식민적 저항의 실천들이 절대로 미미하지 않고, 해방을 향한 집단적 상상력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 소개에 따르면, “작가들은 실시간으로 화면 위에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를 병치하며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고, 이러한 이미지 구성 위에 즉흥적인 사운드를 중첩해 작업의 리듬을 형성한다.”

압바스와 아부-라흐메는 톰 홀러트(Tom Holert)와 나눈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미디어와 팔레스타인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이 내놓는 그토록 많은 팔레스타인

재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활성화하기보다는 비활성화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카이브로부터 우리는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굴하고 있는가?[1] 길 Z. 호흐베르크(Gil Z. Hochberg)는 그게 진정한 돌파구였던 적이 있는가를 되묻는다. 그에 따르면, 아카이브에서 발견하는 행위는 이미 알려진 역사적 정보를 거듭해서 확증하는 작업에 더 가깝다. 같은 정보와 같은 사실을 거듭 발견하고, 폭로하고, 공유하는 일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호흐베르크가 말한 '아카이브 피로(archive fatigue)'에 빠질 수 있다.[2] 그러다 팔레스타인을 고정된 틀에, 그것도 외부자나 지배자의 시선에서, 피해 서사나 오직 피해자로만 정체화한 이미지에 가둬버리기도 한다. 이 위험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살아있는 것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피로와 대상화의 문제는 노동안전보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일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이 오직 비참한 이미지만으로 소비될 경우, 반복되는 부고들에 무감각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같이 반복되는 죽음에 지쳐 피로해질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자들을 오직 위험천만한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피해자로만 정체화하는 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카이브 피로와 대상화에 맞서기

압바스와 아부-라흐메는 "팔레스타인의 견딜 수 없는 삶의 조건은 언제나 전 세계의 불안정한 삶의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주류 언론, 정치에서 팔레스타인은 마치 극단적 예외 사례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행해지는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폭력을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예외화에 반대하여, 팔레스타인을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으로 탈예외화하려는 논의들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3] 화석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착민 식민주의를 중동에서의 서구 제국주의와 미국의 헤게모니, 석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걸프 아랍 군주국들의 자본주의적 이해관계 등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팔레스타인은 결코 일탈로 여겨질 수 없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정상

1) 바셀 압바스·루안 아부-라흐메 지음, 박기형 옮김, 「아카이브 다중」, 웹진 인-무브.

2) 길 Z. 호흐베르크 지음, 박기형 옮김, 『팔레스타인-되기: 미래의 아카이브적 상상을 향하여』 서문, 웹진 인-무브.

3) 안드레아스 말름 지음, 추선영 옮김,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두번째테제, 2025); Adam Hanieh, Robert Knox, Rafeef Ziadah, Resisting Erasure: Capital, Imperialism and Race in Palestine (London: Verso, 2025).



▲ 바셀 압바스 & 루안 아부-라흐메, <우리가 불이 되고 불이 우리가 되려면> 전시 포스터. 출처: 누화컨템포러리

일 수 없다."[4]

또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살아있는 주체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삭제와 부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는지, 극한의 폭력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를 돌보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통 사회에서 행했던 삶의 방식을 변용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난민 캠프에서도 나름대로 사회를 건설하고 삶을 영위한다.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진 팔레스타인인들 중 누군가는 귀환을 염원하면서 미래에 건설할 팔레스타인 마을을 디자인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걸프 군주들이 꿈꾸는 휘황찬란한 빌딩과 리조트들(가자 GREAT 계획이나 아브라함 회랑) 대신, 그 디자인들은 회복과 돌봄을 위한 장소들을 그린다. 광장, 놀이터, 도서관, 공공 교통, 공원, 주거시설 그리고 방문하지만 정주하지는 않을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재회호텔 등.[5] 이렇듯 팔레스타인은 분명 미래를 상상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매일 짓고 있다.

압바스와 아부-라흐메는 단언한다. "노래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끝 모를 파괴로 깊이 파묻힌 과거의 메아리. 그러나 미래를 향해 울리고 있는 메아리. 그 메아리는 여전히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고 있다. 압바스와 아부-라흐메와 함께, 그 메아리를 듣고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알터

4) 샤리 플론스키(Sharri Plonski) 지음, 박기형 옮김, 「팔레스타인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정상일 수 없다」, 웹진 인-무브.

5) 누라 에라카트(Noura Erakat) 지음, 박기형 옮김, 「팔레스타인에서 미래를 디자인하기」, 웹진 인-무브.